

# 헌재 직원 “특수업무비 개인계좌 입금 부적절”

### 이동흡 후보 인사청문회 이틀째 ‘업무비 횡령’ 공방 규정대로 썼다면 증빙서류 제출 안해 민주 ‘부적격’ 보고서 채택 추진키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규정된 용도로 다 사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까지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2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 김해영 사무관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 계좌에 넣은 점,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대해 물었다.

이 후보자의 현재 재판관 재임기간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위해 특정업무경비를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계좌에 넣었다”고 인정한 뒤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계좌에 있는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는 개인적 보험료, 해외송금, 개인적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쓰이고 일부는 예금으로

남아있다”며 “자기 집 간장과 남의 집에서 빌려온 간장을 섞어서 그 중 일부를 썼을 때 내 간장을 썼다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함에도 매달 300만~500만원을 한 번에 제공하면서 증명서는 한 달에 한차례만 받은 것에 대해 강기정 특위 위원장이 “특정업무경비 지출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증빙 서류를 내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왜 안내냐”라고 질책했다.

김 사무관은 답변을 통해 “(미공개) 관행이 있었고, 공개 시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정부 부처 어느 기관이 낱말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지만, 지금 현재 낱말이 공개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안부 국가배상청구권 위헌 의견 등 친일 성향 논란을 놓고 참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 간에 설전도 벌어졌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이 후보자의 판결이 헌법과 법리에 맞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역사학자들은 국민법 감정과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맞섰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민약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으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위법 행위 및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

삼아 자신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흑시나 하고 지켜보거나 부적격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이 질의를 받으며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당 개혁 ‘시동’ 걸었다

### 대선평가위·정치혁신위 첫 회의...전대준비위도 조만간 활동 개시

민주통합당 재건의 양 축인 대선평가위와 정치혁신위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당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대선평가위와 정치혁신위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각각 회의를 열어 상례를 갖고 활동 범위와 방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대선평가위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4~11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엄정

한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당 노선 등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평가위원회 홍종화 의원은 “대선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당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혁신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문재인-안철수 캠프’ 간의 새정치공동선언과 민주당 새정치위원회 성과물을 바탕으로 민주당 자체 개혁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 일반 영역의 새정치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자체의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혁신 과제로는 중앙당 혁신과 당원구조 개혁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 혁신위는 개혁안을 내 놓는 데 그치지 않고 개혁안이 당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그동안 여

러 번 쇄신을 했는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의 문제와 관련한 대선평가위도 마찬가지로 중시하고 있다.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을 당원과 당규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대준비위도 조만간 활동을 마무리 짓고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평가위 및 정치혁신위의 결과물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들 위원회의 활동과 보조를 맞춰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2일 1박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갖고 대선평가 및 정치혁신, 대외 전략 등에 논의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 사업 논란 전문적 검증 필요”  
김황식 총리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총리실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관계부처의 의견 차이가 있어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 국민 혼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감사원의 지적 사항 가운데 지적이 옳아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정부’ 이글 청와대 쌍두마차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은 누구 최경환·진영, 김장수·윤병세 등 물망

청와대 조직 개편이 끝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통령의 ‘복심’이 기용됐던 사례가 이번에도 유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새누리당 3선인 최경환, 진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현재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비서실장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는 점이 변수다. 원칙주의자인 박 당선인이 현역 의원이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을 버리고 도중에 의원직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3선 의원 출신으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 박 당선인의 30년 지기로 막후 조력자인 최외출 전 대우 교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입’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인수위 정부

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들 모두 친박(친박근혜) 측근들이어서 오히려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장에는 대선 기간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가 우선 거론된다. 김 간사는 참여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내면서 국방·안보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정부적 감각도 갖춘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인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후보로 거론된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0년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창립 전부터 박 당선인을 도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리얼미터 64%·갤럽 51% 朴당선인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실시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63.6%로 집계됐다.

박 당선인의 대선 득표율이 51.6%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 때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박 당선인의 긍정적 국정수행에 기대를 거는 유권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

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같은 기간 1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19%였으며, 보통과 의견유보를 묻는 항목을 별도로 넣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년 전인 2008년 1월 셋째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5.2%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 여수, 남, 남안
  - 원서접수 기한
    - 특별전형(면접): 2013. 1. 31(목) 18:00 까지
    -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 3. 관리사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후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하고 교통, 광고효과최고!

**임대 총 1,2.5층 각 100평, 52평**  
**관장업종** 병, 의원약국, 금융기관 사무실 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사무소** (빌딩상가전문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 경매투자

- ▶취급: 특수/NPL 물건
- ▶방법: 개인/공동투자 가능
- ▶보장: 동기/근저당
- ▶자금: 1억원 이상
- ▶기간: 6개월 정도
- ▶수익: 연30% 이상 가능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

### 경매비법 전수

- ▶회비: 개인 1,100만원 / 공동 550만원
- ▶혜택: 1인1물건 낙찰 보장 / 교육/임장비등 일체 평생 경매 상담 무료 / 사무실 사용 등등

(주)오현경매 H.010-4667-9300

### “급” 매매

1.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2층 38평
2. 현,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임대 중
3. 대출 3,000만원 정도 가능
4. 사무실 전용, 울수리, 주차편리
5. 감정가 14,700만원 / 급매가 6,700만원(일시불 조정가)
6. 주인직매 010-3605-5000

---

1.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2층 49평
2. 현, 보, 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 중
3. 대출 3,000만원 안고 가능
4. 사무실 전용, 인테리어 최상, 창가
5. 급매 8,700만원
6. 주인직매 010-3605-5000